

현직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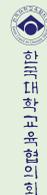
100문100답

현직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22층 1호~5호)
TEL : 02)6919-38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현직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2015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특징



◎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유형이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등 3개 유형으로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 등 2개 유형으로 간소화됩니다.

 전형방법이 대학별로 최대 6개 이내(수시 4개, 정시 2개)로 간소화됩니다.

◎ 대입전형 체계 표준화

구분	전형 유형	핵심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교과 : 교과 중심 • 학생부 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등
	실기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등
	실기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 학생부 교과 전형 :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 ▶ 학생부 종합 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및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입학사정관전형의 차이점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같이 서류평가, 면접평가 등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을 운영하였던 대학의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유형은 논술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해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논술 비중보다 높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구분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유형에는 실기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으로 '특기자 전형'을 포함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은 주로 정시에서 수능능력시험 성적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입니다.



2015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주요 특징

- ✓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간소화
-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 ✓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다른 전형 요소를 적용하는 '우선선발' 전형 금지
- ✓ 대학별고사(논술고사, 구술면접, 적성)는 지양하고, 학생부 활용 전형 확대
- ✓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후 변경 금지(법령의 제·개정,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시정·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 ✓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통합 (수시 1차, 2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원서접수 기간 설정)

Contents

Part 1. 입학사정관제

Q1	입학사정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10
Q2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11
Q3	입학사정관제의 학생선발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12
Q4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성과와 전망은 어떠한가요?	13
Q5	입학사정관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14
Q6	입학사정관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15
Q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 선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6
Q8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17
Q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18
Q10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19
Q11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20
Q12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1
Q13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고교 교육과정)과 사교육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22
Q14	고교-대학연계활동이란 무엇이고, 대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24
Q15	대학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추수지도)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25
Q16	입학사정관 운영 공통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나요?	26
Q1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8
Q18	고른기회전형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나요?	29
Q19	2013년 10월에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0
Q20	2015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전형 명칭이 사라졌는데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되는 건가요?	31
Q21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2

Part 2.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Q22	특별한 스펙이 없는데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해도 될까요?	36
Q23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나요?	37
Q24	서류평가에서 평가요소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38
Q25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9
Q26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반영 비율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40
Q2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41
Q28	학교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기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한가요?	42
Q2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종합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43
Q30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44
Q31	학생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45
Q32	서류평가에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46
Q33	봉사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47
Q34	교내 각종대회 수상실적은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48
Q35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기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49
Q36	사설캠프 참가나 자격증 취득, 외부수상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되나요?	50
Q37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진로희망사항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51
Q38	서류평가 시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만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52
Q3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지 않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53
Q40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있나요?	54
Q41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가요?	55
Q42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56
Q43	팀별 활동이나 공동수상 실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57
Q44	전교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행사도 의미 있게 평가되나요?	58
Q45	지원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전공프로그램, 캠프, 모의면접에 참여하면 가산점이 있나요?	59
Q46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60
Q4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공부를 못해도 잠재력과 열정만 충분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61
Q48	전체 교과목 성적은 높은 편인데,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 성적이 낮다면 불리한가요?	62
Q4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별 학력 차이를 두고 평가하나요?	63
Q50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가요?	64

Contents

Part 3. 전형자료작성

Q51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요?	68
Q52	자기소개서의 공통양식은 무엇이며,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69
Q53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0
Q54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교외활동을 기재해도 되나요?	71
Q55	자기소개서 작성 시 고등학교 재학 전의 활동이나 타 대학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을 기재해도 되나요?	72
Q56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활동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일관된 활동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73
Q57	교사추천서는 무엇인가요?	74
Q58	교사추천서는 꼭 담임교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75
Q59	교사추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교사추천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76
Q60	동일 지원자인 경우 지원하는 모든 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교사추천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77
Q61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교사추천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78
Q62	학교생활기록부는 무엇인가요?	79
Q63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80
Q64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81
Q65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82
Q66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83
Q67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84
Q68	에듀팟(포트폴리오)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85
Q69	에듀팟(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86
Q70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은 무엇인가요?	87
Q71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자료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88
Q72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면 되나요?	89
Q73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무엇이며, 유사도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0
Q74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복수로 지원한 경우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증 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91
Q75	여러 대학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교사추천서는 유사도 검증 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92

Part 4. 심층면접

Q76	심층면접이란 무엇인가요?	96
Q77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기존의 입학사정관전형 면접방식과 다른가요?	97
Q78	심층면접과 구술면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98
Q7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9
Q80	인성면접은 무엇입니까?	100
Q81	심층면접 평가내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101
Q82	심층면접에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02
Q83	심층면접의 면접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03
Q84	심층면접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4
Q85	서류평가를 담당할 입학사정관이 면접평가를 하나요?	105
Q86	심층면접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106
Q87	심층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8
Q88	심층면접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09
Q8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110
Q90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1
Q91	심층면접 시 복장이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2
Q92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은 실시되나요?	113

Part 5. 기타

Q93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116
Q94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사설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117
Q95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준비 과정에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118
Q96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119
Q97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120
Q98	내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21
Q99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모두 읽고 평가를 합니까?	122
Q100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와 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23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Part 1 입학사정관제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Q1 | 입학사정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A 입학사정관제는 선발·평가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환경, 지원학과에 대한 소질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학생선발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이미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착되어 오늘날 미국대학 교육의 다양성과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치열한 대입경쟁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AO(Admission Officer)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처럼 전반적인 입학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7년 10개 대학에 입학사정관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 2013년 현재 100여개 대학 이상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제도가 확대 정착된 바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입학사정관제 정책 지원과 새롭게 선발전문가로 자리 잡은 입학사정관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선발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대학, 공교육의 발전에 미치는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고교의 적극적인 노력, 입시경쟁에 지친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룩한 성과입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핵심요소인 입학사정관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이해, 학생선발 방법과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갖춘 입학전형전문가로서, 기존의 학업점수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학력, 소질과 능력, 인성,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전문가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학업능력을 평가할 때도 단지 학업관련 지필고사 성적만을 고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제출서류, 면접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총체적으로 학업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의 인재상과 부합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은 대학이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표,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라면 지원 대학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관련 교과 공부에 충실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A 21세기 지식기반 창조사회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인성이 갖추어진 인재육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서 교육부(2007. 06. 14)는 '대학이 당장의 1~2점 점수 차보다는 대학입학 후 발휘될 잠재능력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입전형 전문가가 학생선발에 관여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은 연중 입학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대학 입학업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목적은

- 1) 고교-대학 연계전형의 실현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 도모
- 2) 대학의 '선발경쟁'을 '교육경쟁'으로 전환
- 3)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정량평가)에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 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평가 실현
- 4)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 전문가 활용체제 구축
- 5) 점수 위주의 기계적 평가로 선발타당도 및 대학의 선발-교육 연계 미흡 문제 극복
- 6) 대학이 선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선발된 학생에 대한 연구와 추후관리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입니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목적〉



Q3 | 입학사정관제의 학생선발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 유형은 크게 학교생활충실형, 진로탐색형, 역경극복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생활충실형'은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 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선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명칭 그대로 학교생활에 성실하며 내신이 우수하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중에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충실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진로탐색형'은 학업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중 대학이 설립 이념, 모집단위 특성 등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형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우수인재전형'('리더십전형', '자기추천자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전공특성우수자전형' 등)에서 주로 선발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로탐색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 '역경극복형'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Tip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방법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 되나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방법에 따라 '일괄합산전형'과 '단계형전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괄합산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한번에 일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단계형전형은 일반적으로 2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 1단계에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Q4 |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성과와 전망은 어떠한가요?

A 기존의 학업 점수위주 선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소질과 능력, 인성,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고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고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자료의 핵심요소로 정착하면서 교사의 평가권이 강화되고, 학교 교실이 살아나면서 공교육이 대입전형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입학전문가를 활용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고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통하여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이 우수한 인재를 학과별 인재상에 맞게 선발함으로써 타당도 높은 선발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입학사정관들에 의한 추수지도와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사후관리는 선발과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입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교육 소외지역이나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입학생의 출신 고교, 출신 지역, 출신 계층의 다양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전·후 각각 3년간을 비교한 결과 주요대학에 입학생을 배출한 지역, 계층, 고교가 매우 다양해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입학사정관제가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Q5 | 입학사정관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은 교과성적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대입전형 자료를 통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전형 전문가를 말합니다.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됩니다. 전임입학사정관은 연중 입학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이며, 대학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은 위촉기간 동안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입니다.

대학마다 대입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 지원자의 특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역할과 활동 범위 역시 대학 및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1)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축적·관리
- 2) 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개발
 - 입학전형자료 DB분석, 고교 학업관련 활동 현황 파악 및 DB구축·유지, 고교별 교육과정 특성 조사 및 반영방안 마련 등
 - 전형요소별 제도 개선 연구, 서류 및 면접 평가요소 관련 반영 연구, 모집 요강 및 지원자 제출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개선, 대입제도와 고등학교와의 상관관계 연구, 입학생 중단연구 등
- 3)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
 - 서류평가 계획 수립, 평가위원 교육, 서류 및 면접 평가, 면접문제 출제 평가, 고교 현장방문, 전형요소별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 4) 고교-대학 연계 활동
 - 입학설명회 개최, 입학홍보물 제작,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입학 안내 및 온·오프라인 상담, 대학탐방, 전공체험 프로그램, 모의전형 등
- 5) 입학생 대학생활 적응지원 활동
 - 예비대학, 기초 학습 프로그램 제공, 재학생 멘토링 연결 등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을 위한 학업과 학교 적응활동 지원

Q6 | 입학사정관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A 입학사정관은 학생선발에 참여하는 대입전형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모든 지원자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준수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에 대한 전문가로서 공교육 내실화와 학생선발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입학 업무 전반에 관련된 지식과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능력을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은 대학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입학사정관은 해당 전공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교사나 교육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입학사정관으로 임용되면 최소 120시간 이상의 입학사정관 교육을 이수한 후에 서류 및 면접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대학에서는 평가관련 집중훈련을 중심으로 매년 최소 4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교육 이외에도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은 대입전형 연구, 평가나 교육 상담관련 연수, 세미나 및 워크숍, 고교 현장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촉기간 동안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위촉입학사정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서류 및 면접 평가 전에 최소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외 워크숍 및 모의전형 등을 통해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전임입학사정관들은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www.kauac.net)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공동연구·교육훈련 시행,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적·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7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 선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 선발 절차는 대학이나 전형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전공지', '서류평가', '면접', '최종선발'의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사전공지' 단계에서는 전형의 취지, 지원 자격, 선발기준 및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안내하며,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지원자격 관련서류 등)를 토대로 지원자격 및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서류평가 통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대학의 일부 전형에서는 서류평가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의 기초학업능력, 전공적합성,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리더십, 봉사정신 등 학생의 특성과 교육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선발' 단계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형 절차와 함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다단계평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전형단계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수-다단계 절차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수-다단계 평가 예시〉

1단계	지원 자격 심사	· 고교정보시스템(대교협제공) 활용 (전입입학사정관) · 전형취지 적합여부를 중심으로 지원자격 심사
2단계	서류유사도검증	· 서류검증실시(유사도검색시스템) ▶ 서류검증팀 검토회의▶ 진위여부 확인 ▶ 입학사정관위원회 심의 ▶ 공정성심의위원회 검토 ▶ 표절대상자처리
3단계	서류평가	· 서류평가: 전입입학사정관 또는 전입 + 위촉입학사정관
4단계	재평가	· 일정 등급 이상 차이 발생 시 제3의 평가자가 재평가 실시
5단계	재평가 및 재검토 대상자 심의	· 재평가 이후 재평가 대상자(재재평가) 심의 · 재검토 대상자 심의(서류 평가 시 실사를 시행하기도 함)
6단계	1단계 위원회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 평가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심의
7단계	면접평가	· 전입 및 위촉사정관 면접평가, 서류진위확인, 인성평가, 역량 확인 등
8단계	최종 위원회	· 입학사정관위원회(유사도검색 사후 모니터링 결과 심의 포함)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최종 합격자 결정

Q8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 다른 전형에서의 평가방법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키워드는 종합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다수-다단계 평가입니다.

과거 입시가 학생들의 성적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기계식 평가였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지원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기록이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추가제출서류(필요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면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원자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이나 활동의 횟수·누적시간 같은 정량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는 맥락적이고도 주관적인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진정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서 드러나는 지원자의 목표의식 및 활동의 다양성과 일관성 등을 살핍으로써 지원자의 활동이 가진 진정성을 파악합니다. 또한 지원자의 활동이 가진 수준을 판단하면서 활동 결과로서의 실적의 화려함이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그 활동 자체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특징은 다수에 의한 다단계평가를 통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주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라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보통 2~3명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평가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평가자 간의 서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평가자간 편차를 줄이고, 일정점수 이상의 편차가 발생했을 때는 제 3의 평가자를 통한 재평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급적 서류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자가 면접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보다 많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평가방법을 시행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그 외에 학업능력과 더불어 인성평가를 강조하고,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실천능력을 예측하는 행동중심평가를 하고자 노력하는 점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9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A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모든 입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서류와 면접평가 등에서 다수-다단계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대학별로 마련한 인재상과 평가준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평가과정에서 1명의 학생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게 되며, 서류 및 면접평가 등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걸쳐 다단계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간의 견해가 일정 수준 이상 차이를 보이면 새로운 입학사정관 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정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지원학생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입학 부정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회피·제척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해당년도 입시에 관련되는 경우 평가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게 됩니다.

셋째, 평가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은 서류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대학 간 누적자료 검증과 웹 검색을 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검증된 서류의 유사도를 위험·의심·유의 수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교사확인,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절, 대필 및 허위 여부를 검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 서약, 입학사정관제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체 감사 및 상호 견제 장치 마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전형계획 사전 공지 및 정보 제공, 이익제기 해결을 위한 소청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10 |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A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2008학년도)에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2009학년도 40개 대학, 2010학년도 90개 대학, 2011학년도 117개 대학, 2012학년도 121개 대학, 2013학년도 125개 대학, 2014학년도 127개 대학으로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는 200여개의 4년제 대학 중 약 63.5% 정도이며, 전체의 2/3정도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선발하는 인원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1학년도에는 35,412명, 2012학년도에는 41,762명, 2013학년도에는 47,606명, 2014학년도에는 49,649명으로 계속 증가 되어 왔으며, 2015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이 60,61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년도별 입학사정관제 도입 현황〉

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실시대학수	10개교	40개교	90개교	117개교	121개교	125개교	127개교
선발학생수	254명	4,476명	24,696명	35,421명	41,762명	47,606명	49,649명

이러한 증가 추세와 더불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의 활성화와 그러한 꿈과 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입전형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주요 대입전형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에서는 논술고사나 적성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방식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입학자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정원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인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11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적합한 학생은 지원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업능력이 있으며, 교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나 경력을 통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했던 노력과 이뤄낸 성취를 보여 줄 수 있는 학생입니다.

다만,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마다 인재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대학의 설립 이념,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요소, 평가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집요강, 전형 안내 자료 등을 통하여 인재상, 평가요소 등을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단계로 전형을 실시하는지, 면접을 중요시 하는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어떤지, 지원 자격 제한(농어촌, 기화균형, 국내 고등학교 졸업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학 및 학과마다 조금씩의 특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인재, 진로탐색에 열심인 인재, 역경을 극복한 잠재력 있는 인재 등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에 대해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명한 진로목표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관심분야에 열정을 쏟은 학생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교내활동(봉사, 동아리, 체험활동, 수상실적 등)이 지원학과에 적합한 학생
- 도전정신, 적극성 등이 뛰어나 리더로서 인정받는 수선수범하는 학생
- 어려운 교육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학생
- 독서나 비판적/분석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면접 및 문제해결 등에 자신 있는 학생
-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등

Q12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입학사정관제는 특정한 준비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진로나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가는 과정 모두가 입학사정관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관심, 적성이나 소질, 진로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자신의 진로와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과 관심분야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다거나, 진로·적성 관련 심리검사를 받아 보고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거나, 학교생활에서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는 과정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중에서 적성이나 소질,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학교 안에서 펼쳐 보이고, 관심분야와 관련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반적인 성적 관리로 관심 전공영역에 대한 수능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되게 되며, 대입전형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핵심 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내에서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담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점검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대하여 꾸준히 기록·관리(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꾸준하게 기록' 한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참여 동기, 활동 과정, 느낀 점,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그때그때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자료는 전형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작성해 보는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강·약점을 점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속 없는 여러 대회 수상이나 의미 없는 수백시간의 봉사활동보다 꾸준한 기록 관리를 통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3 시기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있는 대학 및 학과의 인재상은 무엇인지,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학마다 반영비율 및 평가단계 등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고, 최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모의면접을 해봄으로써 면접에 대한 준비 및 자신감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13 |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고교 교육과정)과 사교육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는 고교 현장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학교별 진학설명회, 진로진학관련 프로그램 등 진로·진학지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등에서의 교사의 평가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면서 상담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등 교실에서의 수업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및 진로진학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 : 17개 교육청, 82개교 대상(2012, 대교협)

〈고교 변화에 대한 교사 설문 조사 결과〉

- ◆ 고교교사의 67.7%(510명 중 345명)이 '학생들이 토론이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 고교교사의 96.3%(510명 중 491명)이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

*자료 :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고교 현장의 변화 분석 보고서(2012, 대교협)

또한 입학사정관전형은 비입학사정관전형(논술전형, 수능전형 등)에 비해 사교육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유형별로 사교육 경험 정도를 분석해 보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논술전형, 수능전형, 교과성적우수자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비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비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소득분위별 신청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경제적 배경이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입학사정관전형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형유형별 사교육 경험〉

전형명	응답자 수	사교육 경험자 수	사교육 경험 비율
입학사정관전형	133	40	30.1%
논술전형	117	91	77.8%
교과성적우수자전형	56	46	82.1%
국제화전형	21	19	90.5%
수능전형	224	194	86.6%

*자료 :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중단연구 보고서(2014, 지은림)

〈2013년 전형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소득분위	입학사정관전형	비입학사정관전형
4-7분위	3,608명 (18.0%)	13,710명 (14.3%)
0-3분위	6,572명 (32.8%)	20,794명 (21.7%)
전체	10,180명 (50.7%)	34,504명 (36.0%)
최종 등록자	20,066명	95,906명

*() 최종 등록자 대비 비율, 분석대상 : 36개교(선도 19교, 우수 17교)

*자료 : 입학사정관제 현안 및 발전 방향(2013, 대교협 내부자료)

Q14 | 고교-대학연계활동이란 무엇이고, 대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A 고교-대학연계란 고교의 교육이 대학의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고교와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고교-대학연계활동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크게 교사와 학생(학부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교사자문협의회, 전형관련 위원회, 교사 참여 모의전형, 간담회 및 설명회,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연계활동, 공동연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정확한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전형 설계 및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학교 및 학생 실태조사 연구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크게 진학(전형) 관련 프로그램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진학 관련프로그램'에는 입시 설명회, 모의 전형 체험, 전형관련 온·오프라인 상담활동, 자기소개서 및 면접 특강, 오픈 캠퍼스 및 캠퍼스 투어(견학) 등이 있습니다.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진로 탐색 및 전공(학과)체험 활동, 고교-대학 동아리 연계 활동, 고교생-대학생 재능기부활동 및 멘토링 활동 등이 있으며, 그밖에 창의성·인성·리더십 함양 관련 활동이나 캠프, 봉사 및 답사활동,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전형설명회나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서는 전공에 관한 자료집이나 관련 동영상 제공해 주기도 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관심분야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넓혀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입시에 유불리가 있거나 가산점을 제공받지는 않지만 진로설계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Tip

고등학생이 대학수업을 미리 체험할 수는 없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UP)을 통해 고등학생들은 대학수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홈페이지(<http://up.kcu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5 | 대학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추수지도)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학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추수지도: Follow-up Service)이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발전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학업지원 등의 교육적 노력을 통해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추수지도 프로그램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 전과 입학 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입학 전 추수지도 프로그램'은 대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 지 모르는 합격생들이 입학 전 캠프나 학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에 참여토록 하여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 선배 및 교수님과의 만남 등을 갖고 효율적인 대학생활 계획 및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학 후 추수지도 프로그램'은 대학에 입학한 후 안정적인 대학생활 정착 및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학업적응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예비대학 프로그램
 -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학교생활 안내, 선후배 만남, 시간관리, 리포트 작성, 진로검사 등)
- 2) 학업지원 프로그램
 - 기초학업능력을 진단하고 학업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각종 학업지원 프로그램
- 3) 상담 및 멘토링
 - 입학사정관, 재학생 및 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 4)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양 및 전문가 특강, 소모임 활동, 봉사활동 및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Q16

입학사정관 운영 공통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나요?

A 2007년에 시범 도입되어 2008년(2009학년도 전형)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초기부터 전형취지, 전형절차, 전형방법 등을 여러 방식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사에게 계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의 전형방법(정성적 종합평가)이 모호하고, 학생의 스펙을 중심으로 한 '스펙전형'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2010.4.6)"을 발표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운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추진 원칙', '입학사정관전형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공통기준의 '입학사정관전형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은 입학사정관전형의 내용(지원 자격, 전형요소, 제출 서류 등)을 건학 이념,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인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둘째, 대학은 입학사정관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셋째, 대학은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원자에게 과도한 제출서류 작성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예시)〉

- ◆ 전형요소
 - 토익·토플·텡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을 반영하는 경우
-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 자격 제한(예시)〉

- ◆ 토익·토플·텡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으로 지원자격 제한
- ◆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 지원자격 제한
- ◆ 수학물리과학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으로 지원자격 제한
- ◆ 논술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대회 등 교외 입상 성적으로 지원자격 제한
- ◆ 일반 고교에 개설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 또는 이수단위로 지원자격 제한
- ◆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로 지원자격 제한 등

이러한 운영공통기준에 의해 대학은 2011학년도 전형부터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는 전형은 '특기자전형' 등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 반영을 금지하고, 특정 시험 성적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은 2015학년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Q1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으로서의 인성이나 가치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인성'은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계기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성과 관계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강화하고 인성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소개서 :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평가를 위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사추천서 :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교사추천서 공통양식'에도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인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 면접 : 인성평가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면접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교정보시스템 : 고교의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 평가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교생활 중 기록되거나 확인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학들은 지원자의 사회성, 협동심 등 '인성'을 중요한 평가요소와 역량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Q18

고른기회전형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교육부는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및 교육적 수혜자의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차상위급여수급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출신 및 특성화고졸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고른기회전형'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 대학입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외 전형뿐만 아니라 정원 내 전형으로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이 전체 모집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2014학년도 28,904명, 2015학년도 30,396명)하였으며, 2016·2017학년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는 고른기회전형을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하고, 학생의 환경 및 교육여건,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고른기회전형은 상당 부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른기회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희망하는 전형에서의 지원자격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19 | 2013년 10월에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A 교육부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 체계의 단순화와 학생부위주전형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전형 준비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에서 교육부는 “대입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 대입전형이 유의미한 교육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학, 고교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대입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대입전형 유형 및 체계를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 실기 등 크게 네 가지 전형요소로 단순화하여 표준화하고 분류하되, 대학별로 수시에서 4가지, 정시에서 2가지 전형방법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체계〉

구분	전형유형	주요 전형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 교과중심
		학생부 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및 증빙자료 활용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및 증빙자료 활용가능)

이렇게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전형유형을 분류하게 됨에 따라 전형요소로 유형화되지 않는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유지·운영하게 됩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유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 전형이 입학사정관전형과 같은 성격의 전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부 위주 전형의 확대 방향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규모도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학이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인원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Q20 | 2015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전형 명칭이 사라졌는데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되는 건가요?

A 2013년에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하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없어졌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은 전형요소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유형화되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라는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제’란 입학사정관이라는 입학전형전문가가 지원자의 성적, 적성, 소질,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안에는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전형, 고교-대학연계, 정성적 종합평가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전형방법으로서의 입학사정관전형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제도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전형을 분류하는 분류체계의 차이일 뿐 두 전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전형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사정관전형은 평가주체를 강조하여 붙인 명칭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요소를 강조하여 붙인 명칭의 차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전형방법으로서의 입학사정관전형을 포함하는 제도적 개념이며,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명칭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전형방법이 존재하는 한 입학사정관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1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대입 전형유형에는 수시의 학생부위주전형, 논술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이 있고, 정시의 수능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유형으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각 대학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을 설정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교과·비교과·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이라는 점은 같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느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를 모두 반영하여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느냐와 같이 평가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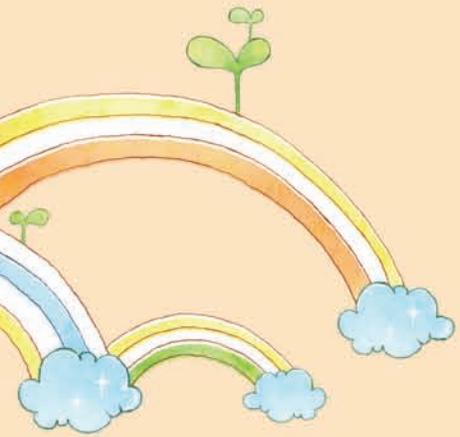
Tip

입학사정관전형과 특기자전형의 차이점은?

‘입학사정관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특정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격요건을 지원 자격으로 두고, 교과성적이나 실기(특기)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정영역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은 특정한 지원 자격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분야의 능력만이 아니라, 학업능력, 인성, 잠재력, 전공적합성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Part 2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Q22

특별한 스펙이 없는데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해도 될까요?

A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스펙'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스펙'은 영어 specification의 약자로 기계의 사양이나 설명서를 뜻합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소위 스펙이 좋다는 것은 각종 교과성적 및 비교과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춰졌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를 '내신 2.8등급, 봉사 150시간, 동아리 부회장 1회, 반장 1회, 토론대회 우수상 2회 수상' 등의 양적인 잣대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지가 합격의 지름길도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이 다양하고 성과물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가산점이 붙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수도 대회규모에 따른 수상실적의 합도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는 독특한 이력의 학생들은 언론에서 기사화하기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고른 특이한 사례일 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특한 이력을 갖추기 위해 교외의 각종 활동에 눈을 돌리다보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던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는지, 지원 분야의 적합성, 잠재능력, 소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학교생활 중에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열정, 노력한 과정과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여 각종 영역에서 다양하게 수행했던 많은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했던 경험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충실히 해오면서 자신의 꿈을 꾸준히 탐색해 온 학생이라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Q23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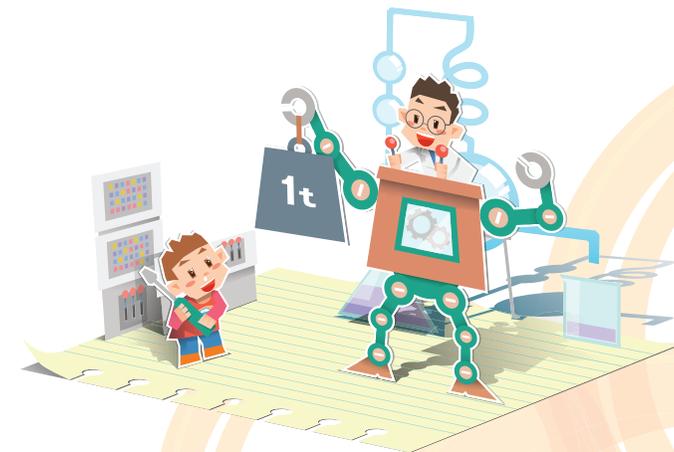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단순히 많은 활동을 했던 학생보다는 각종 활동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일궈낸 학생을 선호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여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류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되도록 많이 참가하여 서류의 기재 분량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활동은 무조건 다양하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의 질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다른 분야의 활동에 참여했지만 방향성이 없고 목적의식도 없이 단순 참여에 그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활동 경험과 호기심을 발판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정리하고, 관련된 책자를 찾아보고, 토론과 협력 과정을 통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무리한 봉사활동, 사교육에 의존한 각종 외부대회 참가, 공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공인어학성적 취득 등의 활동은 오히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은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꾸준하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4

서류평가에서 평가요소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2010.8)에는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요소를 크게 교과관련요소,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충실도, 인·적성, 학습 환경으로 나누고, 입학사정관전형 평가기준을 학업의지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인성,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에서 제시한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공통적인 평가요소, 평가기준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종합평가
〈교과 관련 요소〉 • 교과성적 • 학년별 성적 추이 • 학업관련 탐구 활동 •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방과후학교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 독서 활동 • 자격증 및 인증 • 진로탐색·체험활동 • 동아리 활동 • 봉사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 등 〈학교생활 충실도, 인·적성〉 • 공동체 의식 • 리더십 • 학업의지 • 특별활동 • 출결 상황 • 교사의 평가 • 교우관계 등 〈학습환경〉 • 가정환경 • 학교 여건 • 지역의 교육여건 • 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	학업의지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인성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종합평가(holistic approach)에 의한 최종 등급 평가 ⇒ 합격·불합격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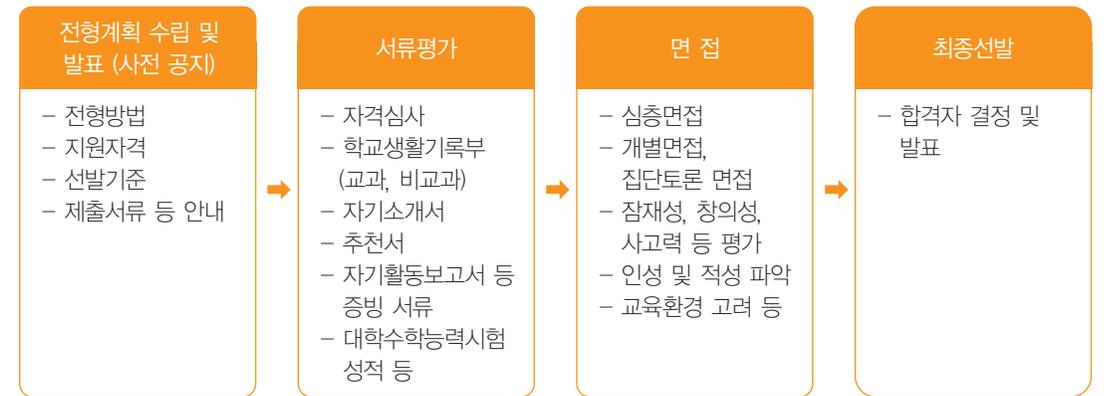
*자료 :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2010.8)

Q25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전형계획 수립 및 발표(사전공지)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최종선발 등 총 4단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일반 평가절차〉



첫째, 전형계획 수립 및 발표(사전공지) 단계에서는 전형 취지, 지원 자격, 선발기준, 선발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접수 이전에 모집요강,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공지를 합니다.

둘째,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원서접수 이후 지원 자격 조건이 있는 전형의 지원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평가요소와 기준을 정하여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면접평가 단계에서는 대학에 따라 개별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는 지원한 모집단위와의 적합성,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원 서류의 진위여부, 인성이나 기본적인 학업 소양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 창의성, 사고력 등을 종합평가 합니다.

넷째, 최종선발 단계에서는 공지된 전형방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였는지를 대학별로 자체 심의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Q26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반영 비율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A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제출 서류를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의 경우 각각의 서류를 분할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을 제출한 여러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평가 총점을 '학생부 50%, 자기소개서 30%, 교사추천서 20%'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합니다.

학업수학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성적과 교과 관련 수상실적, 독서활동기록이나 수업과 관련하여 기재된 성취 내용 등을 참조하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 학습과정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교사추천서를 통해 교사의 관점에서 본 지원자의 학업능력의 장단점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여러 제출 서류를 종합하여 지원자의 학업잠재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에 따라 최종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총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출서류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지원자의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만 참여 사실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는 경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통해 활동의 과정이나 느낀 점, 발전한 모습 등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평가과정에서 서로 독립되어 있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성적이나 교육활동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일반적으로 대입전형에서의 전형자료는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로 제한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또한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성적 및 교육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활동이나 경험이 이후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2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는 각 대학에서 선임된 입학사정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됩니다. 전임입학사정관은 1년 내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며, 위촉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과 교수, 퇴직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서류 및 면접 평가기간에 맞춰 위촉됩니다. 대학에서는 선발 인원과 지원자 수에 맞춰 적정수의 전임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전임입학사정관 대비 적정수의 위촉입학사정관을 위촉하여 평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행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보통 지원자 1인에 대해 전임 및 위촉입학사정관 2~3인 내외가 한 조가 되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지원자 1인에 대해 많게는 4인 이상이 서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2단계 면접평가는 대학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지원자에 대해 서류평가자와 면접평가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평가자의 일부만 면접평가자로 위촉하거나 서류평가자와 면접평가자를 완전히 다르게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촉입학사정관의 경우 해당 학과 교수가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단과대학의 다른 학과 교수가 서류와 면접평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전임과 위촉사정관이 영역별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 영역별로 역할을 구분하거나 학업,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 위촉입학사정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과 운영 방침에 따라 대학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각종 이론교육, 모의평가 등 기준 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입학사정관으로 위촉하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Q28 | 학교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기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가요?

A 전국 2000개 이상의 고등학교는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목표나 설립 이념, 학교장의 운영 방침, 지역의 환경적 여건, 교사 및 학생들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가 풍부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원자의 고교 3년의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입학사정관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일정 분량 이상 자세하고 충실하게 작성 되었을 때 정성적·종합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내용이 많은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지 않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세밀한 자료들이 대학에 충분히 제공될 경우에 올바르게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기록하는 풍토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Q29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종합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평가)의 종합평가는 평가원칙과 평가방법,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가원칙으로써의 '종합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평가 영역에 맞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요소를 모집요강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업수학능력'이라는 평가요소를 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등급, 모집단위 관련 과목의 성적, 성적변화 추이, 이수과목 및 단위, 각종 수상실적이나 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기재된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각각의 평가요소를 조합하여 평가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지원 모집단위와 얼마나 잘 맞는 학생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 방식을 '종합평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합평가의 특성 때문에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합격 예측 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이 낮다고 문제제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측정된 점수의 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입학사정관전형과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평가방법으로써의 '종합평가'는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 종합평가)에서의 평가점수 부여는 '종합적 평가방법'과 '분석적 평가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 평가방법'은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비교과활동, 인성, 창의성 등 각 평가 영역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각종 영역을 종합한 최종적인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분석적 평가방법'은 각 영역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각 영역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원칙에 따라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Q30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원자의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이 기록되어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자의 곁에서 지켜본 여러 담당 교사의 입장에서 기술된 만큼,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의 분량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대학입학에 반영되는 항목도 출결상황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의 최소 실적 정도였고, 그나마도 많은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항목 하나 소홀히 취급하거나 꼼꼼히 살피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 영역에 적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그 학생의 전체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생의 기본적인 학업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교과목을 3년간 이수했는지, 교과와 원점수, 표준편차, 등급, 이수자 수 등 학업능력은 어떠한지, 각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여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해당 전공분야에 적합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출결상황’은 지원자의 성실성 및 근면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상경력은 학업수학능력, 진로목표, 전공과의 적합성과 연계되는 요소입니다.

‘진로지도사항’ 등은 진로목표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되지만,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대학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결정한 계기를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서 전공과 관련된 체험활동은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이라도 자기주도성, 협력능력, 리더십, 인성, 학문적 소양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독서활동’은 전공적합성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문적 소양, 관심 분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 추천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Q31

학생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이외의 다른 전형에서는 시험 성적 등 최종적인 학습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습과정, 학습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은 그저 짐작에 의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무런 근거 없이 입학사정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성취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각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은 하나의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사항,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이 외에 성장 배경이나 역경 극복 경험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Tip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는 현장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장 실사 과정은 개별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확인이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에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장 방문 장소는 제출 서류의 실사 내용에 따라 학교, 가정, 활동 기관 등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며, 제출 서류에 기록된 활동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원자의 학교, 가정, 활동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면담이나 교사(기관 관계자) 상담을 실시 할 수 있으나, 해당학생은 이를 위하여 별도로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32

서류평가에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은 중요한 평가 내용입니다. 전공적합성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대학 진학 후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능력, 전공 이해도 및 적성, 전공 관련 진로 탐색 활동 경험, 학업 및 진로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더러 전공적합성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봉사 경험이 있어야 하고, 경제학부에 가기 위해서는 경제동아리에서 무조건 활동해야 하며, 신문방송학부는 방송반이나 신문반의 활동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인식입니다. 또한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의학과에 적합하다거나 아픈 사람을 보살펴준 경험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도 전공적합성이 높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활동도 지원자의 전공 선택 동기, 노력,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단순히 그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전공적합성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때 사회나 국어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과성적, 토론·독서·글쓰기·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한 학업적 능력, 사회와 인간에 대한 호기심, 전공 계열에 대한 탐색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학진학 후에도 해당 학문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학 수준의 심리학 서적을 읽는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또래 상담 과정을 이수하고 상담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지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테두리에 갇히려 하지 않고 보다 넓은 영역에 두루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33

봉사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봉사활동은 입시경쟁 속에서 학업 능력을 높이는데 급급한 고등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이타심, 배려정신 등을 키워주는 영역입니다. 많은 대학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 수준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비해 현재까지 지원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봉사로 영역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충실해졌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은 봉사 실적이나 시간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실적과 경험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느 정도의 실적과 양'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봉사가 몇 시간 되어야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어느 대학도 얼마 정도의 시간이 적합 하더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의 내용입니다. 봉사활동 시간이나 실적이 많다고 해서 평가에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학교생활기록부나 기타 자료를 통해 판단하며, 최종적으로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의 활동 장소와 시간, 활동 내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부적절하게 늘리거나 의미 없는 봉사활동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진심어린 봉사활동이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갈 수 있는 해외봉사활동이나 수백 시간의 단순한 봉사활동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교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학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활동이라도 사회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의미가 큼니다.

Q34

교내 각종대회 수상실적은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A 교내 각종대회 수상실적은 학생의 성실성, 도전정신, 학습능력이나 창의성, 협동정신 등 다양한 부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교내경시대회, 토론, 논술, 글쓰기대회, 과학실험대회 등을 통해 학생의 실력을 뽐내는 대회도 많이 생겼으며, 봉사, 리더십, 진로탐색, 출결, 모범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수상합니다.

일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해당 영역에서 일정한 성취를 했다는 점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상실적을 수치화·계량화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수상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숫자만큼 가산점이 붙는 방식도 아닙니다. 도전하고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여 학생의 성장을 질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빈번한 수상실적이 없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 보편화되면서 각 학교의 각종 수상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상실적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상실적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상실적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대학에서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수상실적 내역을 면밀히 관찰하여 각종 대회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을 주는지, 지원자가 대회를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추가 서류로 제출할 수 없으며,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기재할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5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기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독서능력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꾸준한 독서활동은 많은 지식을 쌓는 동시에 사고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고교 시절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독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폭넓은 독서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켰던 학생이라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 기록이 얼마나 많이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독서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며, 독서활동의 결과나 그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상황 그 내용 자체를 평가요소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나 개인에 따라 독서활동상황 기록에 편차가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지원자의 독서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독서활동에서는 독서량에 얽매이기 보다는 본인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교과목 내용과 관련된 과학책을 틈틈이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꿈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학과를 정한 학생들은 독서를 잘 활용한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지원자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을 경우 면접에서 이를 검증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이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읽은 책에 대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 좋습니다.

Q36

사설캠프 참가나 자격증 취득, 외부수상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되나요?

A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고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밖에서 실시되는 각종 외부 행사 참여, 사설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 수상실적,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성적 등의 교외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고등학교의 정상화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에서 제외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실시 초기에는 지금처럼 각 학교별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흥미나 진로와 관련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개설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대학입학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내신이나 수능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대학입학을 위해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소위 스펙을 쌓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 목적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되고 한동안 사교육 업체나 신문사, 언론사, 또는 청소년 수련 단체, 외국으로 봉사하는 단체 등 많은 업체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참여할 경우 대학입학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많은 활동을 할수록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내적 성장보다는 외적 팽창, 즉 실력보다는 타이틀을 중시하는 왜곡된 전형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이 각종 대회를 위해 도전하고, 수료증이나 참가증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외부 활동 참여의 기회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학교교육의 테두리에서 접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외부 활동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7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진로희망사항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지도상황 기록에서 학년별로 진로희망사항이 변화된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희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지원학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통념은 오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로희망이 2년 또는 3년 동안 동일해야 한다거나, 지원학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진로희망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로희망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한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진로희망사항이 변경되는 과정도 학습의 과정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성장 과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이 잦을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들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지도상황에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 활동을 충실하게 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진로를 찾으려고 노력하여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진로 변경 이후 새로운 진로와 관련한 활동이나 노력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8

서류평가 시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만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A 지원학과와 특별히 관련된 활동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평가에 포함됩니다. 지원자가 일찍부터 본인의 관심분야와 지원학과를 탐색하고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여 지원학과와 관련된 꾸준한 활동을 보여 온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단편적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을 평가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활동(교과/비교과)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대학마다 인재상이 상이하여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비교과영역에 대한 종합평가는 크게 성실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창의성,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성실성'은 교과성적 추이나 수상경력, 출결상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전공적합성'은 지원학과 관련 과목 이수 여부나 성적, 수상경력, 관련활동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발전가능성'은 특기, 진로 희망, 교내활동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창의성'은 학생 입장에서의 문제해결력이나 다양한 재능 발휘 사례를 살펴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은 배려와 봉사, 나눔의 의미에 대한 지원자의 가치관을 묻는 동시에 지속성 여부에 따라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취 결과를 비롯하여 활동 과정을 통해 느낀 점, 지원자의 변화 모습까지도 평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평가)의 서류평가 시 전공적합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만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학교생활 전반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Q3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지 않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외활동은 가급적 축소하고 학교 내 활동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내용(지원자격, 전형요소, 제출서류 등)을 건학이념,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면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하여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동 기준(2010.8)'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에 따라 전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예시)〉

- ◆ 토익, 토플, 텡스, JLPT 등 공인어학시험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영어 면접 등
- ◆ 해외봉사 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
-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경우

특히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학생부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공통양식에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한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이외의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작성한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되지는 않지만 사교육 요소가 있는 수상실적이라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교외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은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인정하여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공통양식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교육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40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있나요?

A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 더 좋습니다.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의 나열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알게 된 특징이 평가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는 학교별로 차이가 없지만 교사의 의견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분량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이 많은 경우, 오히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이나 중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활동들이 복잡한 기록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활동이나 지원 모집단위와의 관련성이 높은 특별한 활동들은 자기소개서에 일관되게 기술하여 진실성을 확보하고, 참여 동기와 과정 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칫 상투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분량을 늘리는 경우 오히려 입학사정관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읽는데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여 평가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양의 서류평가를 경험한 입학사정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읽고 지원자의 활동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활동이 지원학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단점 보다는 장점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냉정한 관찰을 통해서 장단점을 과감하게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담당교사는 그것을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입학사정관에 따라서는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Q41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고교 교육과정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차지원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수학이나 탐구과목의 이수현황에 따라 문·이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고교에서의 교과이수과목들과 모집단위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 이수여부 또는 관련된 활동 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적합성에서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이과 교차지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설정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하다면 계열을 바꾸어 진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지원자 스스로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기 계발에 힘쓰고 진로 설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거나 계열에 맞지 않은 활동이라도 자신의 진로 설정 과정의 밑거름이 됐다면 그 연관성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성적의 전체적인 수준, 지원 대학의 특성이나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성적, 성적의 추이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업평가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성적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교학과는 한문 과목이나 국사 과목, 행정학과는 법과 사회 과목, 정보통계학과는 수학 교과, 기계공학과 지원자에게는 수학이나 물리 과목, 천문우주과학과는 물리 과목이나 지구과학 과목, 원예학과는 생물 교과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학과 특성상 고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학과와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예: 교육학과)에는 일반적으로 문과 계열 학과는 국어나 사회 교과를 이과 계열 학과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를 비중 있게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업 성적 평가의 기본 원칙은 지원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과 태도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높은 학업 성취도(또는 향상도)를 보였고 이를 제출 서류로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전공에 대한 적합도는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학업역량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2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환경(지역·경제적인 차이 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교가 실시하고 있는 교내활동에서 지원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느끼고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과정과 성취를 평가합니다. 가령 서울·수도권처럼 비교적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학교와 비교했을 때 소외지역(농·산·어촌지역) 학교를 단순히 위치적으로 다소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소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교의 비교과활동이 서울·수도권보다 오히려 질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처한 교육환경에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본인의 진로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교육환경인 고등학교 정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해당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고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교육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히 점수로 환산된 고등학교 성적 이외에 현재의 학업성취도에 도달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제공된 기회에 대한 활용정도, 동일한 조건의 다른 지원자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고교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대상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정보시스템은 지원자의 교육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 자료로 지원자가 속한 고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정보에는 학교규모, 직위별/교과별 교원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등의 내용이 있으며, 교육현황에는 수준별 교과, 방과후학교, 학교 내 수상, 교내경시대회, 동아리현황, CA현황, 봉사활동현황, 학생회조직, 야간자율학습, 심화교과, 전문교과 등의 내용이, 그리고 특기사항에는 특색사업-교과, 특색사업-비교과, 진로진학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43

팀별 활동이나 공동수상 실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여러 학생이 함께 팀별로 활동한 경우,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같은 활동을 하였기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같더라도 지원자가 담당했던 역할과 느낀 점, 배운 점과 같은 과정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피력하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활동한 부분이나 역할을 언급하고 팀에 기여한 정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현재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팀별 활동에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역할로 임하였고 공헌하여 성과를 냈는지, 그러한 활동이 대학시절에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동아리 활동은 팀별로 활동하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평가자는 학생의 전공적합성 및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창의성, 리더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소질 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와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인 만큼 공동체에서 학생의 역할과 대인관계 능력, 타인 배려, 리더십 등 다양한 부분을 관찰하여 그 학생의 인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단체 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 본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노력, 의미 있는 성장, 소속된 단체를 위한 남다른 헌신과 열정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수상실적이 있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기주도적인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지원자의 관심분야 또는 지원 분야와 동떨어진다면 실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상 결과물이나 실적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달려온 과정을 통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동기), 어떻게 참여했는지(과정),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결과) 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자기소개서 관련 문항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4 | 전교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행사도 의미 있게 평가되나요?

A 전교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행사들도 서류전형에서 평가요소에 따라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입학사정관전형 운영 공통기준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요소에는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및 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참여하는 행사(특강, 수학여행, 체육대회, 축제, 회장선거 등)도 학교생활충실도나 공동체의식이나 리더십, 인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교-대학 연계활동의 내용도 확대되고 참여하는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학생의 기본자세와 열의에 따라 결과 및 학생들의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기록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아니라 지원자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기주도적 활동과정이나 태도에 대한 기록 내용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전교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행사를 기재할 때는 최대한 교사의 주관을 배제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이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였거나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을 담당했거나 전교학생회 임원으로서는 축제를 담당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학생이 담당할 역할과 과정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면 학교생활충실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생이 참여한 행사라도 그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자신이 성장한 점이 있다면 기록하여 이후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Q45 | 지원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전공프로그램, 캠프, 모의면접에 참여하면 가산점이 있나요?

A 대학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진로·진학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대학의 선발 인재상을 비롯하여 학과 및 전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면 전형 준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한 학생들은 전공 소개 및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전형 체험 및 상담 활동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에서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불참에 따른 감점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고, 일부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입 전형을 위한 실적을 위해 참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한 기록은 평소에 잘 정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한 지원 학과(전공)를 미리 체험해 보거나 진로·진학 정보를 얻음으로써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Tip

지원하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도움이 될까요?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도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Q46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면적인 모습을 평가하여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대표적이며, 정성적 요소는 교과성적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내용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및 기타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또한 정량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과성적은 저조한데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은 우수하다거나,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등급이 기록되어 있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각 교과별 전체등급이나 개별 교과의 성취등급을 기본으로 하여 단순히 등급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이수한 교과목의 구성이나 원점수, 표준편차, 등급, 이수자수 등을 고려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전공분야에 적합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 교과목의 성적을 중요하게 반영하거나, 최근 각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교사가 작성한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둘째,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서류평가에 일정 비율로 반영하거나 일정배수의 1단계 통과자를 선발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반영 비율이나 반영 교과목은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검색하거나 또는 지원 희망 대학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7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공부를 못해도 잠재력과 열정만 충분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소질과 잠재력,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한다는 취지는 학습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리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으며, 전형별 기준에 따라 학업성취 및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실성 및 학업 수행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교과성적은 대학 진학 후 학습수행을 위한 기초학습능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낮은 성적은 학교생활에서의 성실성과 학습능력 등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과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실현 가능한 향후 학업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종합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각 자료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므로 현재 학업성적이 좋지 않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소양을 드러낼 자료는 없는지, 혹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48 | 전체 교과목 성적은 높은 편인데,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 성적이 낮다면 불리한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과전공에 대한 지식을 충실히 쌓은 학생들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 다른 교과목보다 전공 관련 교과목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전공 관련 교과 성적도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진로나 관심분야가 빈번하게 바뀔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어떤 계기로 전공이나 진로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학과 관련 과목의 성적이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전공과의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교과성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활동들과 함께 연계하여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낮더라도 비교과영역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거나 학업 외적인 활동과 진로에 대한 탐색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학과 관련 과목의 성적이 낮더라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관련활동을 통한 탐색 노력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진로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한 구체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확인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ip

면접평가 대상자를 대체로 3배수 내외로 선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적·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에 따라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한번에 진행하여 합산 평가하는 총괄평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와 같이 단계별 전형을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평가 대상자를 일정 배수 선발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계별 전형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면접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평가에서는 서류평가 내용 확인과 전공적합성(소질, 적성 등), 인성, 잠재력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심층면접은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면접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정 수의 면접대상자를 선발하여 면접을 진행할 경우 평가내용 및 평가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전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49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별 학력 차이를 두고 평가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별 학력차이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인별 학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합니다. 학력수준은 반드시 교과등급 점수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교과 이수 내역, 교과성적의 원점수와 표준 편차, 교과 관련 성적추이,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 수상실적 등을 의미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학력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학생 간 차이를 비교하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대학에서 정하는 수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같은 교과(내신) 등급의 학생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고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정보시스템의 '교육현황'에는 수준별 교과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내경시대회, 동아리, 봉사활동 현황 등 지원자가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 정보가 있으며, '특기사항'에는 교과 및 비교과 관련 특색사업과 진로진학지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할 때 학생의 교육적 여건 등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평가를 위해 활용됩니다. 지원자가 화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 재학 중인 고교가 화학 관련 심화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관련 동아리나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지 등을 참조하여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프로그램이 없다면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Tip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재수생에게는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3년간의 교과와 비교과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서류평가에 있어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작성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매년 더 나은 방향이 모색되고 있어, 졸업예정자의 경우가 재수생 이상의 지원자보다 다소 유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재수 당시의 활동에 대한 서술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재수생의 경우 전년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경우 유사도 검색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많은데, 이런 경우 유사도 검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보다 더 나아진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50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 '스펙전형', '부자전형'이라는 오해와 함께 특정 유형의 고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 결코 특정 유형의 고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아닙니다. 일부 대학의 일부 전형에서는 전형의 특성 상 특목고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의 고교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반고 학생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교 유형별로 고르게 선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자 고교유형별 분포〉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 (검정고시, 대안학교)	합계
합격자 수	28,593명	2,409명	1,621명	1,879명	555명	35,057명
비율	81.5%	6.9%	4.6%	5.4%	1.6%	100.0%

*자료 분석 : 2012년 입학사정관제 정부 재정지원 대학 66개교 대상

또한 입학사정관전형이 특정지역 학교에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는 오해도 있으나, 전형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는 제도 도입 이후에 보다 다양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학생 구성의 다양성〉



*자료 분석 : 2012년 입학사정관제 정부 재정지원 대학 66개교 대상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 대한 우대, 비우대라는 기준으로 보기보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학생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즉,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기 때문에 선발해서도 안되겠지만, 불합격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입학에서 선발을 위한 절대기준은 학생의 우수성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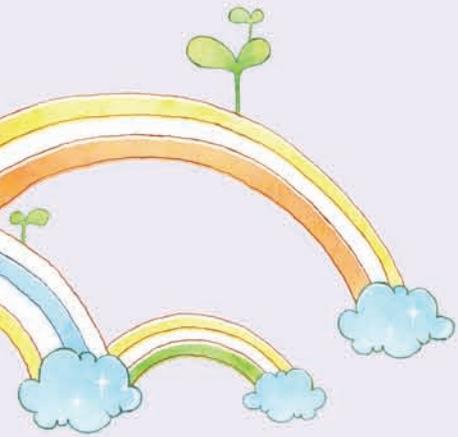
Tip

학교폭력에 억울하게 휘말려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 및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기재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을 무조건 불합격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심층면접,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지원학생에 대한 다면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학사정관은 서류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사를 합니다. 실사의 대상은 본인과 교사, 피해자 등이며, 필요하다면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현장실사와 진술서 확인 등의 검증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게 되며, 다단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가 이뤄집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도 대입전형 시 인성발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이후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변화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Part 3 전형자료작성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Q51 |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요?

A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와 함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 자신의 내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꿈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며, 학교생활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원 대학 및 지원 학과에 적합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가 교사의 눈으로 본 학생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스스로 나타낸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 자기소개서 그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문장이 수려한 글이 잘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고 진솔한 것이 잘 쓰여진 글이라 할 수 있으며,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2 | 자기소개서의 공통양식은 무엇이며,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각기 다른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할 때 나타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공통양식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기준,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 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②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 ③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자율문항]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글자 수는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학생의 학교생활(학습 활동, 교내 활동), 인성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3개의 공통문항과, 대학에서 필요시 추가할 수 있는 1개의 자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53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진학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학 및 전공학과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인재상, 지원학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기소개서는 활동의 참여 동기, 과정, 결과, 성장 발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실적만 단순히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을 과도하게 꾸미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자기소개서는 글쓰기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문장력이나 문체를 평가하고자 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고등학생 수준의 문장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 오타자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을 좀 더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서류검증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절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남의 글을 베끼거나 남에게 맡기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작성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기소개서는 각 문항별 작성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한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이 임박해서 작성하기 보다는 미리 공개된 자기소개서 양식에 맞춰 평소에 미리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Q54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교외활동을 기재해도 되나요?

A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교외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외활동은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5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서는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작성 시 서류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처리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활동이면 교과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 내용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활동이라면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문항에 글자 수 제한이 있는 만큼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사항〉

1. 공인어학성적

-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 수 학 :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
- 과 학 :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 외국어 :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Q55

자기소개서 작성 시 고등학교 재학 전의 활동 이나 타 대학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을 기재해도 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했는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내용 역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참여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01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서는 3개의 공통문항을 두고 있는데, 이들 3개의 문항 모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참여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전의 활동이 어떤 계기를 제공하여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활동인 경우에는 참여 동기를 밝히는 과정에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등학교 이전의 활동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내용도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면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추가로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Q56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활동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일관된 활동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활동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 때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모집단위와 관련된 일관된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다양성과 일관성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충실도'입니다. 지원자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 성과들과 노력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행평가, 독서, 토론 등 교과 수업을 포함하여 교내에서 운영되는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활동, 수행평가 및 공모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탐색 과정에서의 경험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발전된 부분, 성장한 모습을 자기소개서에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에 따라 경험한 활동이 각기 다를 것이고 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의미 부여의 접근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 중에 자신의 관심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다양한 활동을 일관성 있게 연관시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나는 A, B 활동도 했으며, ... Z 활동까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라고 기술하기 보다는 '나는 A 활동으로부터 Z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는데 이 중 D 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혹은 D 활동을 통해 E 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OO학과에 입학하여 F 분야를 개척 혹은 발전시켜 보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7 | 교사추천서는 무엇인가요?

A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함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사추천서는 해당 학생을 추천한다는 일종의 증명서이며 학생이 지원한 학교 및 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는 점을 체크리스트와 글로써 나타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추천서는 대학 및 전형에 따라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교사추천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 시 활용됩니다.

교사추천서는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하여 지원자의 역량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인재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전형자료입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학업관련 영역 뿐 아니라 환경, 태도, 능력, 인성 등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지켜본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학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좋으며, 학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교육자로서의 견해가 충분히 피력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Q58 | 교사추천서는 꼭 담임교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A 교사추천서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사추천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담임교사(특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과 담당 교사, 혹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자가 활동에 참여한 동아리 담당 교사 또는 학생과 조금 더 깊은 교류가 있는 교사가 작성해도 좋습니다.

담임교사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학생의 강점과 역량을 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다른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교내활동 중 열정적이고 충실히 한 활동을 기술하게 되는데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이러한 점을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동아리 담당 교사가 교사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이 학생의 활동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Tip

저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교원 인증이 가능한 교사라면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재학 중인(또는 졸업한) 교교의 교사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59

교사추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교사추천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교사추천서는 지원자를 학교 현장에서 지켜본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로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첫째, 해당 대학의 인재상이나 전형의 평가영역을 고려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분적으로만 드러나 있거나 혹은 잘 드러나 있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해당 전형의 평가영역 범주 내에서 정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해당 학생의 변별력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내용에 구체성이나 진정성 및 변별성의 요소가 충실히 담겨 있는 경우에는 교사추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선생님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천편일률적으로 칭찬일색이거나 혹은 미사여구로 표현된 교사추천서가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장단점을 가감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단점은 있으나 지원하는 학과에 적합한 인재로 학생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시한다면 균형감 있는 교사의 관점이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나열하는 식의 추천서는 지양해야 하며, 내용이 적더라도 교사가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다른 서류의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과장되지 않은 진실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의 평가내용과 서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한 다른 서류의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매우 우수'에 체크한다고 해서 지원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교사추천서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공정성확보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색을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도가 높은 교사추천서는 전형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교사추천서 역시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2015학년도부터 공통양식에서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작성할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되므로 공통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Q60

동일 지원자인 경우 지원하는 모든 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교사추천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동일한 교사추천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사추천서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유사도검색을 실시하지만 한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경우는 유사도 검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동일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에 대해 한 분의 교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교사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사도 검색 대상이 되어 유사도율을 통해 대학이 표절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 대해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는 그 내용이 핵심적이거나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수준이라면 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분량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 개인의 장단점 등 특성을 잘 반영해서 진솔한 견해를 기술하면 됩니다.



Q61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교사추천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함께 비교 분석해가며 지원자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및 대인관계, 지원 전공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활용됩니다. 가장 좋은 교사추천서는 학생을 가장 잘 알고 동시에 추천의지가 분명한 교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서의 반영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천 교사가 불성실하게 기록하거나 표절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원자의 평가자료에서 제외되어 교사추천서 제출이 의미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관찰이 미흡하여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는 교사추천서는 추천서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내용을 뛰어넘어 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형자료입니다. 의례적인 내용이나 칭찬 일변도의 내용보다는 교사가 파악한 학생의 실제 내용을 근거를 들어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62

학교생활기록부는 무엇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 중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중 학교생활기록부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종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은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5학년도부터 운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주요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63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학생의 학습내용과 과정, 그리고 각종 활동 내용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기재 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대한 기록과 학생 개인의 차별화된 부분에 대한 기록을 구분하여 가감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사의 기록을 대학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작성에 있어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력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역할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경우는 횡수까지 입력하면 좋습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은 참여도와 활동의욕, 수행한 노력,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진보의 정도와 학생 개인의 태도 변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특정한 문장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분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한 모든 활동이나 수업시간에 배운 자세한 내용 등 학생 개개인의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을 교사의 입장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전체 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기재방법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분량이 많은 학생이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작성하고, 학생 개인별로 고유하게 작성하며, 학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용만을 기록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지원자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Tip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게 기록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게 기록된 내용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 등급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더라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64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자율활동을 통해서는 각각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간혹 학교교육계획 행사를 일괄적으로 입력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 과정 중 학생별 특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 학생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활동은 공동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집단 활동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동아리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취미나 관심분야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학생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내에서 개인별 성취와 노력의 과정이 자세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활동을 기록합니다. 학교 단위로 실시되는 획일적인 봉사 시간만을 늘어 기재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의 취지에 맞는 지속성을 가진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진로활동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학교교육활동에서의 진로 준비를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전 과정이 녹아든 활동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이루어진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면 좋지만,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활동은 자신의 진로설정에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조정하고 확정해가는 변화과정을 기록하면 됩니다.

Q67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내용은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추천서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세부 영역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기록하면 됩니다. 고교 재학 중의 학생의 성장 과정과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학생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소하더라도 학생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기록하면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세부 영역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인성 영역이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인성 부분만을 강조하여 인성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성 부분만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교육과정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관심 등도 함께 기술하여 주면 좋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받은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고, 조치 이후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변화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Q68

에듀팟(포트폴리오)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에듀팟(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한 내용을 스스로 기록·관리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에듀팟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방과후 학교활동,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듀팟에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학생은 자기주도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누적 관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 설계·탐색·개척 능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에듀팟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 개인별 체험활동 등록 건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생의 고교 생활을 기록하는 자료라고 한다면, 에듀팟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교사가 이를 승인하는 자료입니다.

대학에 따라 에듀팟을 그대로 대입전형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에듀팟을 그대로 대입전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듀팟을 통해서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활동 종류, 활동 내용, 활동 기간, 자기 평가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그때그때 모아 둘 수 있으며, 에듀팟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팟을 통해 교사는 입력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지도하고 체험활동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지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9 | 에듀팟(포트폴리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에듀팟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방과후학교, 독서활동 등을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내용을 한 번에 몰아서 기록하기보다는 활동을 하고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항목들을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기간을 정해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진로탐색 과정을 정리해 봅니다. 진로탐색 과정 중의 여러 활동을 하며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진로 목표를 정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생활 중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재정립해봅니다.

'자율활동'은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을 기록합니다. '적응활동'은 학교 적응, 기본생활습관형성, 상담활동 등을, '자치활동'은 학급회, 학생회 협의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등을 기록합니다. '행사활동'은 각종 행사, 체육대회, 현장 학습 등의 내용을 '창의적 특색활동'은 학교별 특색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영역은 학생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동아리활동'은 단순한 활동 실적을 나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진로나 소질과 연관된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한 내용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내용을 기록합니다. 봉사활동 역시 활동 내역만 나열식으로 기록하기 보다는 봉사하게 된 계기,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로활동'은 학업 및 학교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장 방문, 직업체험 활동 등의 내용과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록합니다.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나 진로와 관련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 내용을 기록합니다. 활동 후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독서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책을 읽은 후 인상 깊은 작품의 내용, 책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Q70 |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은 무엇인가요?

A 고교정보시스템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교육환경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근거 자료로 고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개별 고교에 고교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교에서는 서로 다른 양식에 맞춰 고교정보를 매번 작성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양식으로 고등학교의 기본정보, 특기사항 등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교정보시스템에는 고교의 기본정보(학교규모, 교원현황 등), 교육현황(교내 수상, 동아리 현황, 봉사활동 현황 등), 특기사항(교과·비교과 관련 특색사업, 진로진학지도 등), 인성교육(인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첨부파일(대학진학현황, 고교특기사항 등) 형태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정보 확인 및 추가정보 입력은 동일 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수시전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http://aof.kcue.or.kr>)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하여 별도로 고교에 안내합니다.



Q71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자료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전형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한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관련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인·적성, 학습 환경 등입니다.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에서 제공하는 고교관련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학교의 규모, 학교의 지리적 위치,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특색사업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자료를 통해 교과과정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 환경을 파악합니다. 학생은 고등학교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나 참여할 마땅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이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반면 학교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 여건이 좋은 환경 속의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Q72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면 되나요?

A 고교정보시스템(고교프로파일)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및 고교프로파일 내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를 취합하여 고등학교별 기초자료를 작성합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별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회신하여 취합합니다. 이때 대학입학사정관제 공정성확보시스템 내 고교정보시스템 사용설명서도 함께 발송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학사정관제 공정성확보 시스템 내 고교정보시스템(<http://aof.kcue.or.kr>)에 접속하여 입력된 고등학교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고등학교의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학교알리미의 자료를 기준으로 기본 정보가 작성되므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알리미의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알리미에서 제공되는 기본 자료 이외에 심화교과·전문교과 운영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정보 등 교육현황과 관련된 항목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학교생활 안에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면 고교정보시스템의 자료는 객관적이고 상호 비교가 가능한 정보여야 합니다. 학교의 프로그램을 과장해서 작성하기보다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고교에서 자랑할 만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하여 학교만의 특색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73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무엇이며, 유사도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서 표절, 대필 및 허위서류 작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협)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대학들은 모집시기별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색인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비교 대상은 같은 해에 해당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의 서류와도 비교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누적 자료 및 웹 검색까지를 포함합니다. 각 대학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대교협에서 일괄로 유사도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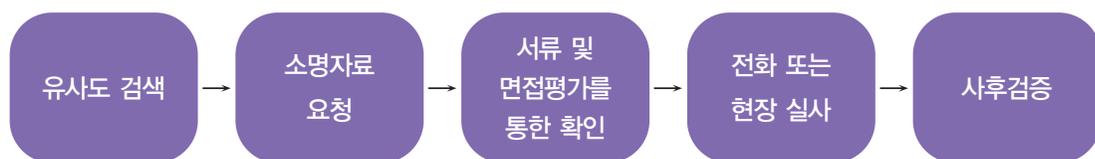
유사도 검색 결과는 위험, 의심, 유의 3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유사도 수준〉

수준별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비고
위험	30%이상	50%이상	표절 가능성 수준 높음
의심	5%이상~30%미만	20%이상~50%미만	표절 우려 수준
유의	5%이상	20%미만	표절 가능성 낮음 / 통상적 글 작성 수준

자기소개서의 경우 유사도율 5% 이상인 위험이나 의심 수준에 대하여 일반적인 유사도 검증 절차(대학별로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검증을 실시합니다. 유사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도 검증 일반 절차〉



유사도 검증 과정에서는 유사도율에 대한 지원자 또는 추천자의 소명 기회를 주고 있으며,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교사확인,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내용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전형이 마무리 된 후 사후 검증을 통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사후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표절이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합격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추천서는 유사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유사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통보하고 교사추천서 작성에 있어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Q74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복수로 지원한 경우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증 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은 지원자의 개인 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한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자기소개서로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한 학교와 학과가 다르더라도 자기소개서는 같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동일인의 자기소개서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수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의 유사도 검증은 제외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협)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지원 학년도의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최근 3개 학년도에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누적검색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대학에 제공되는 검색 결과에는 동일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제외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지원 학년도, 지원 대학, 이름, 출신 고교 등)를 함께 제공합니다.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 간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대학 내 검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대학 내의 지원자 간 유사도율이 높은 경우는 수험번호와 모집전형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와 비교대상자의 자기소개서에서 유사한 문장을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띄어쓰기, 오타자까지도 대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자기소개서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사도 검증 결과 유사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전년도에 합격한 고등학교 선배, 친척, 먼저 합격한 친구 등 지인의 자기소개서와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합격 사례를 예시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고교재학 중 경험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활동을 했더라도 문장이 동일하다면 자신의 경험이라고 뽐낼 수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특징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같은 활동을 하면서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나만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보완하기 위해 남에게 보여주거나 공개된 사이트에 올려서 타인이 베낀 경우, 예시로 소개된 자기소개서 견본을 서로 다른 지원자가 베껴서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나만의 자료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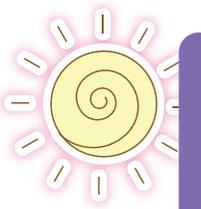
Q75

여러 대학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교사추천서는 유사도 검증 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각 대학에 제출된 교사추천서는 지원 학년도, 지원 대학, 지원자 이름, 출신 고교, 추천교사명, 추천교사 소속 고등학교명을 교사추천서의 내용과 함께 유사도를 검색하게 됩니다. 유사도 검색 결과는 교사추천서도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유사도율이 높은 문장을 그대로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한 교사가 한 학생에 대해 여러 대학에 동일한 내용으로 쓰는 것은 유사도 검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많은 경우는 동일한 교사가 여러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서로 다른 학생의 추천서를 서로 다른 교사가 작성하더라도 같은 고등학교 소속인 경우 등입니다.

교사추천서는 학생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개별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자료로서의 의미는 잃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며, 개별 학생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Part 4

심층면접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Q76 | 심층면접이란 무엇인가요?

A 심층면접은 평가자와 지원자가 면대면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그리고 신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학에서의 학업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은 면접을 위해 지원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질문지를 만듭니다. 이 질문들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나타난 지원자의 학업능력과 활동과정 및 결과 그리고 잠재능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원학생마다 각기 다른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입학사정관이 면접 질문지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지원학생이 지원전공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의 생활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이와 함께 면접에서는 지원학생이 제출한 서류와 활동 결과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나 허위나 과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Q77 |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기존의 입학사정관전형 면접방식과 다른가요?

A 기존의 입학사정관전형 면접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방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바탕으로 질문 문항을 작성하여 지원자의 전공적합성과 인성 및 사회성을 평가했듯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참고하여 지원자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다만, 기존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구술면접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한 지식을 문제풀이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구술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구술면접고사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면접방식은 활용하지 않으며, 지원자의 학교생활, 소질, 인성과 적성, 발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면접 방법의 차이는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서로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전형 준비를 위한 학생 부담 완화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전형은 사실상 같은 전형방법으로 운영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은 2015학년도부터 없어지지만 대학별로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면접유형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78 | 심층면접과 구술면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심층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전공적합성과 인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 반면, '구술면접'은 학생에게 교과중심 문제풀이형 지문을 제시하고 이를 풀게 한 후, 면접고사장에 들어가서 구술로 답변을 하게 하는 방식이며 풀이 결과가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심층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층면접은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를 면접에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질문이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내용 중에서 지원자 각각에 대해 평가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고교기간 동안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을 경우,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보고서, 수상실적 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성취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15학년도 전형부터는 교과중심 문제풀이형 구술면접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Q79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도 지원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지원자가 가진 학업역량과 잠재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는 평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면접평가에서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류를 바탕으로 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서류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면접과정에서는 서류의 '사실'을 확인하고,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내독서토론대회'에 참가했다는 서류내용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한 동기나 배경,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면 봉사활동 기간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 봉사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즉,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제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 교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 지원전공에 대한 열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더불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지원전공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간단한 질문도 가능하므로 면접평가를 사전에 준비하고 면접당일 성실한 태도로 면접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80 | 인성면접은 무엇입니까?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활용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이며, 인성평가는 고등학교 생활 중 꾸준히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누며 협력을 실천해 온 지원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성면접은 주로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서류에서 드러나는 지원자의 인성을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 확인,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고교기간 활동 중 학교생활기록부(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실성과 나눔, 타인 배려심 등을 면접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며, 지원자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도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협력, 나눔, 배려, 갈등관리 등 경험 관련 문항)을 통해 실제 어떤 과정과 동기에 의해 지원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협력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급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후배가 공에 맞아서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을 통해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나눔, 협력 등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면접은 서류에 기술된 지원자의 인성평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면접에서 판단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성면접 내용은 주로 심층면접의 주요 평가항목인 인성 및 사회성 영역에 반영됩니다.



Q81 | 심층면접 평가내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심층면접 평가내용과 기준은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지원자의 학습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지적인 영역과 모집단위와 관련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이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성 및 사회성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에서 학습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지원자의 교과성적, 학년별 성적 변화, 학업관련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방과후학교 활동 등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면접을 통해 고교기간 지원자가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적변화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원전공과 관련하여 전공관련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를 설정하기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적성과 소질은 있는지 등도 주요한 평가내용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을 평가하는 영역에서는 주로 교과 이외의 다양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지원자가 얼마만큼 학교생활에 충실했는지,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나눔, 협력, 타인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요 평가내용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자가 각 평가내용별로 우수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대학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에서 정형화된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 전공 선택 및 진로 설정 사유, 고교생활 간의 직·간접 활동에 대한 성찰 및 회고를 통해 진로와의 연관성을 잘 고려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면접질문 기출문항이 탑재되어 있는 대학도 많이 있으므로 그 문항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시사 문제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하여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82

심층면접에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전공적합성은 대학입학 후 전공분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대학수준에서의 선행 지식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기계와 관련된 전공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로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대학에서 전공하는데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물리)의 학업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지원동기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교기간 이수한 수학과 과학(물리) 과목의 단위 수와 등급 정도, 동아리나 진로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탐색과 준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공적합성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 전공적합성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활동이나 경험, 관련 교과목 이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한 학교 밖에서의 별도 준비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적합성이란 고교에서의 충실한 학습과정만으로도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혹은 관심영역에 대한 본인의 노력과정을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것으로 면접에서 전공적합성은 충분히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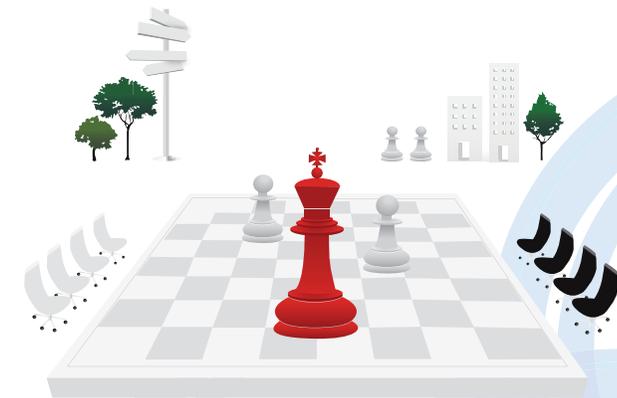
Q83

심층면접의 면접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심층면접의 면접관 구성과 인원은 면접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심층면접에서는 면접관이 2~3인 정도로 구성되며, 교수,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합니다.

면접평가에서 담당하는 평가영역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모집단위 교수들은 기초학업능력이나 전공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은 인성 및 사회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모집단위 교수들은 지원자가 모집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및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입학사정관들은 제출서류를 통해 고교기간 활동에서 드러나는 입학 이후 발전가능성과 인성 및 사회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학의 면접방식을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이 면접평가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과 교수는 면접에서 전공적합성과 인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면접문항을 개발하고 면접에 참여합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서류를 바탕으로 한 개별문항 외에도 전공관련 공통문항과 인재상을 근거로 한 핵심역량을 중점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4 | 심층면접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심층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평가만으로는 확인 할 수 없는 지원자의 잠재력과 인성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선발 단계입니다. 심층면접은 대학마다 그 평가모형이나 도구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별면접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발표면접이나 토론면접을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 평가자는 면접 전 면접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자에 대한 활동이나 상황을 이해 한 후 개별 질문을 구상하여 면접에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층면접은 보통 면접위원 2~3인 대 응시자 1명이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면접시간은 대학별, 전형별로 편차가 크며,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입니다.

면접 진행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면접의 시작 부분으로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간단한 인사말, 가벼운 질문이나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으로 시작을 하며, 시간은 보통 2분 내외입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확인하는 질문, 지원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질문, 시사 또는 상식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지원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식·육구·태도·감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방식도 특정 분야에 대해 한번만 묻는 경우도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OOO에서 OOO 봉사활동을 한 것이 제출서류에 소개되어 있는데 봉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라고 묻고 난 후 다시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 변화가 있었나요?', '본인의 행동 변화가 없었다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등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그 활동의 깊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간의 대부분은 2단계에서 진행되며,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지원자가 면접 시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말이나 면접위원의 인사말 등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Q85 | 서류평가를 담당한 입학사정관이 면접평가를 하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상황에 따라 서류평가위원과 면접평가위원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를 평가한 위원이 면접도 평가하도록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류평가자와 면접평가자가 동일하면 서류평가를 통하여 사전에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시 궁금했던 사항들을 면접평가에서 보다 수월하게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가 보다 힘들지 않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은 누구나 면접평가에 참석하기 전에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지원자의 고교기간 주요 활동과 관심영역, 적성·소질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에 면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동일 평가자가 하거나, 또는 각각 다른 평가자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면접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결정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전공적합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면접평가에서는 학과(부) 교수가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지원자의 인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면접은 서류평가에 참여했던 입학사정관이 면접에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의 인재상과 전형에서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면접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Q86 | 심층면접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개별면접, 집단면접, 발표면접, 토론면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면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어떤 유형의 면접을 실시하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면접'은 면접관들과 지원자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면접관들이 평가하려는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응답하는 지원자의 특성을 관찰하여 대학이나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면접관 2~3인 대 지원자 1인이 10~20분 정도 면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면접관이 여러 명이므로 질문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응답을 다른 면접관들 전원이 주목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접관 전원에게 응답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면접'은 여러 명의 면접관이 여러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석 면접관의 질문에 지원자들이 차례로 응답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면접관 한 사람이 여러 지원자에게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각각 다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답해도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원자 보다 창의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답하지 않는 동안에는 다른 지원자의 응답을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역시 면접관은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면접'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지원자의 논리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발표 전에 약 20~30분 정도 준비를 하게하고 5분 정도 발표와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식을 검증하는 식의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 과목과 전공을 연관 시켜 발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제와 다르게 지원자 마음대로 주제를 변경해서 발표를 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책을 3~4권 정도 정독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면접'은 특정 주제나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 과정을 통해 개인 간 상호작용, 집단 내 개인 행동, 대립과 갈등 해결방식, 말하기 및 경청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단면접과는 달리 지원자 간의 토론이 중심이 되는 면접방법으로 면접관과 지원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공통적인 화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은 수석 면접관이 맡으며, 발언에 특별한 차례나 제한이 없습니다. '토론면접'은 집단에서의 개인의 리더십, 판단력, 설득력, 협동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방법입니다.



Q87 | 심층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평소에 충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온 지원자라면, 일차적인 면접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교기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으며, 자신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면접 준비를 통해 실제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면접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점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을 위한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평소 충실한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의미를 발견했던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해당 대학과 전공에 대한 자신의 지원동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대학, 이 학과에 오고자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원자의 진로·진학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모집단위(전공)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는지, 졸업 후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고, 전공 관련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소한 장소와 처음 보는 면접관 앞에서 갑자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와 면접질문을 만들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버릇이나 말투, 자세 등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원 대학의 면접 기출문제를 참고하고, 대학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면접 동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88 | 심층면접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심층면접은 주로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대한 검증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기록된 내용들과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도록 연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평가자 앞에서 지난 12년 간 노력한 바를 평가 받다 보니, 많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첫 질문부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 질문부터는 준비한 바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면접실 문을 나오게 됩니다. 서류에 기반한 면접을 한다고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적힌 내용 혹은 예상 질문을 만들어 통째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학교생활동안 본인이 꿈을 위해 걸은 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기로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발견된 소질과 적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맞는 학과(전공) 진학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실천하여 왔는가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접관의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면접은 먼저 평가자의 질문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가자가 묻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학생의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잘 듣지 못했다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도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면접관의 질문을 파악하려 하고 생각해 보는 모습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서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질문하지도 않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을 허비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늘어놓기에 바쁜 나머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인지를 파악한 후, 제한된 시간 안에 조리 있게 표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나를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꿈을 향한 자신의 삶의 과정을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를 지키는 것은 면접의 기본자세입니다.

Q89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은 지원자의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학생이 경험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진위 사실 여부, 지원 동기, 전공 적합성, 인성, 학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반영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평가를 활용하는 유형으로는 첫째, 모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면접의 반영비율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서류평가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면접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결과와 합산하지 않고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반영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대학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면접의 유형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학업관련 내용을 묻는 면접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형 유형에 따라 면접평가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면접이냐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면접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은 평가자와 지원자가 직접 대화와 토론을 함으로써 서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원자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90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개인적인 성장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지를 고민하는 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학생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을 감추려 하기 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양한 분야 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독서활동을 생활화 하고, 여러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시사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전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평소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접 시기가 임박한 경우, 말하기(속도, 발음 등), 태도나 표정, 그리고 자신의 의사가 원하는 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친구들 혹은 선생님과 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면접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비속어, 의미를 알 수 없게 줄인 말 등을 사용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지원자가 면접관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이 아니라 면접관과 지원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특성, 잠재력 등을 면접관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활력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며,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면접에서는 유창한 말솜씨보다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질문의 핵심내용을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면접관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끝까지 진솔하게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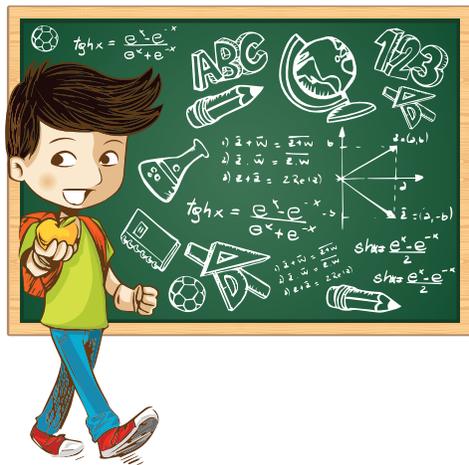
Q91

심층면접 시 복장이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심층면접 시의 몸가짐은 사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복장이 좋습니다. 특히, 지원자가 고교 재학생일 경우, 고교생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가짐이나 외적 모습이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남들에 비해 너무 튀거나 불성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하는 태도에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유 없이 다리를 많이 떨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서 답변을 한다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동작, 지나친 표정,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수험생의 본분에 맞는 태도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말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간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보다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 면접관의 질문에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는 자세, 질문에 적합한 답변 등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예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92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은 실시되나요?

A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 11.)에서는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문제풀이식 구술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술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식 면접 형태를 지양하고 있지만, 지원자의 학업관련 활동의 깊이, 전공과 관련된 적성은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기초적인 학업적 소양을 평가하거나 논리력이나 사고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면접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Part 5 기타



Q93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소개와 각 대학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형별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이외에도 대입안내, 진로진학정보, 전형정보, 대입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1600-1615)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에게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 및 전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대학 입학처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별 구체적 선발방법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집요강, 향후 입학전형의 방향, 기출문항, 입학사정관제 관련 홍보 동영상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각 대학의 입학관련 Q&A 게시판을 활용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오프라인 입학설명회나 대학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입학설명회는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고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횟수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셔서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개별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개별대학을 방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94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사설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각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발견한 개인별 역량과 성장가능성, 적성 등이 보다 중요시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사설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통하여 준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가 보여주고 있는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학교생활에서 지원자가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학교 교육 안에서) 자신이 처한 여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자신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해 왔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설 입시 학원의 컨설팅은 오히려 지원자에게 잘못된 정보나 안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서류검증 절차에서 표절이나 대필이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설 학원의 컨설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입학설명회에 참여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1600-1615)에 문의하거나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는 것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95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준비 과정에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학부모들도 수능 성적이나 점수 위주의 기존 입시체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1점이라도 더 받으려는 입시경쟁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의 '기록'을 통해 대학합격과 자아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학업성취, 학업관련 활동,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및 교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녀 역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지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하여 대학입학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은 자칫 불안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강요하기도 하며, 보다 빠른 결과를 자녀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칫 자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사 또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진로상담 교사들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와 대화를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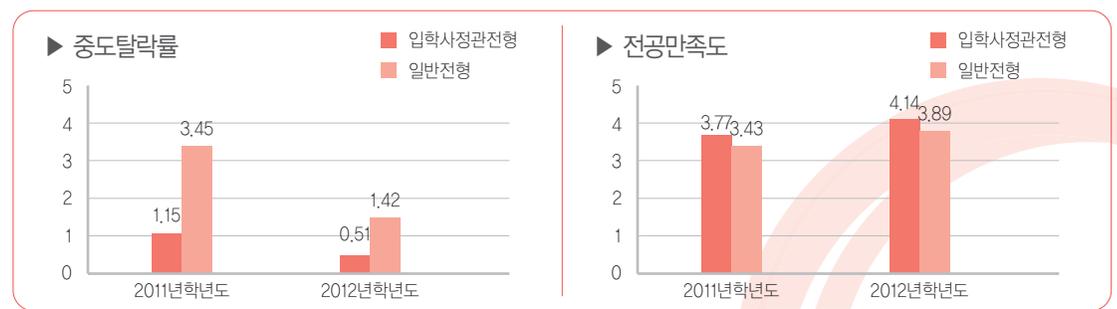
주변의 근거 없는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에게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바심으로 인해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 되면, 오히려 서류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학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녀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학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96 |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학업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흥미와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온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온 학생들로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어 입학 후 학과 적응이나 수업참여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의 대내외 활동, 학업성취도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입니다. 이것은 또한 대학, 학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이어져 중도에 휴학, 전과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전공과목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어 전공에 대한 열정이나 잠재력이 전공과목 학업성취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경우 전공에서 기초 학력의 부족으로 전공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곧바로 학업성취도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래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업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학입학 이후에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중도탈락률 56개교 대상, 전공만족도 22개교 대상(2012, 대교협)

Q97 |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대학별, 전형별로 다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이와 동등한 학업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수 혹은 삼수생으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전형안내 등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3년간의 교과와 교과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된 경우, 고등학교 기간의 교과성적이나 학업관련 활동, 또는 학업외적 활동 등을 평가할 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성적보다는 최근 3년간의 학업 성취도나 학업관련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과거 비교내신과 유사한 방식의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읽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된 지원자의 경우 최근 자신의 학업능력이나 전공에 대한 열정, 학업에 대한 의지, 리더십이나 배려심, 봉사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성취, 수상, 외국어 시험성적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각 대학에 문의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오래한 경우, 대학에 따라 학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리더십이나 봉사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의 모집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교 출신 및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나 평가기준에 대해 해당 대학의 모집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98 | 내가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학업능력이 우수하거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학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성실성이 돋보이는 학생, 그리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학생, 자기주도적이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학생,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노력하며, 성실함이 돋보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지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극복한 사례는 다소 특별한 학생일 수 있으며, 또한 특정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역시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누구나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교나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그 학생이 잠재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야말로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만을 탓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이외의 교육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보고 그것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이미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99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모두 읽고 평가를 하나요?

A 물론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은 교과성적 위주의 정량적 평가만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열정,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원자의 인성, 잠재능력과 소질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성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들은 평가를 위해 지원자의 성장과정과 환경을 비롯하여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3년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교과성적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을 지원자들의 상황에 맞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를 자세히 읽게 됩니다. 지원자의 학년별/과목별 교과성적 추이와 그 이유,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활동 선택 이유,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적인 평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모든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한편,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의 항목이 지원자의 학업관련 노력, 학업 외 활동과 느낀 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는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100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와 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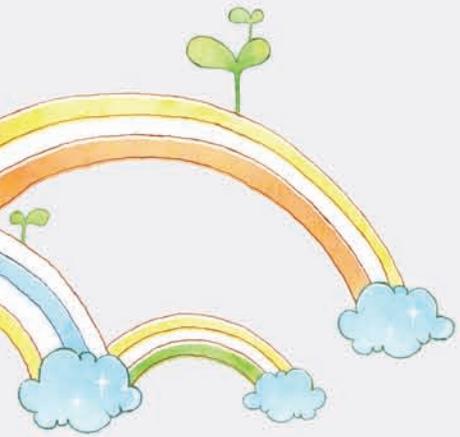
A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이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선발방식은 미국 동부의 다트머스대학을 시초(1922)로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 종합적, 포괄적, 맥락적 검토(individualized, comprehensive, holistic, contextual review)를 통하여 입학결정을 내리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학업점수 이외의 종합적 평가를 시도하는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의 모델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역사적 배경, 교육적 환경, 사회문화적 차이, 정책적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선발방식을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대학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국의 전국 3,000여개 대학 중 400여 개교, 약 12%만이 이 전형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입학사정관이 입학전문가로 있는 대학은 모든 입학생을 입학사정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발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일부만을 선발하고 있는 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학정원이 국가차원으로 제한되지 않아서 선발평가가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인 상대평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입학전형평가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권한이 더 주도적이어서 선발전문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어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미국은 서류의 신뢰도가 높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어서 포괄적이고 맥락적인 평가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범위가 매우 넓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여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다는 점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학업능력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지만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미국대학들이 경험의 다양성이나 문화적 예술적 경험 등을 중시하는 반면에 대학 입학 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활동의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전문가가 학업을 중심으로 기타 다양한 활동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본 선발 개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
100문100답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부 록



+ 집필진 편집후기

▶ 이 미 경 |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된 지 7년여, 짧은 시간이었으나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대학도, 고등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문 100답 편집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고생한 입학사정관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이런 의미 있는 판을 만들어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도 막상 질문으로 던져지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문에 100답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만큼 각 대학들의 전형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일반적인 답변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주시길 바랍니다.

▶ 윤 평 강 |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100문 100답을 집필 하면서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아왔던 질문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이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 대학별로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 한 질문, 질문마다 전국의 여러 입학사정관님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자신의꿈을 찾고 학교 안에서 성실히 노력하라" 입니다. 입학사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마주할 때 가장 설레고 힘이 납니다. 본인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지만 그것을 응원하는 입학사정관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그 행복을 찾아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 차 정 민 |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학생부종합전형 시대에 입학사정관 이름이 들어간 책자제목에 일단 감사! 글을 완성해 나가면서 입학사정관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스스로 토대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일정 속에서도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제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항상 목마른 우리 학생들에게 한줄기 단비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 우 덕 제 | 한국교통대학교 입학사정관

100문 100답을 집필하면서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제 곧 사회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될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차 큰 일꾼인 학생들이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으로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 연 화 |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100문 100답 집필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100문 100답이 학생·학부모·교과 교사 등에게도 도움을 주겠지만, 입학사정관인 저 역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수 영 | 부산대학교 입학사정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6년간의 입학사정관제와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유익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 진 희 | 계명대학교 입학사정관

100문 100답 집필을 함께 하며 개인적으로도 입학사정관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는 소중한 고마운 날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희 집필진의 작은 보탬이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독려하고 지원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 신 원 동 |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글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고민하게 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여러 글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김 병 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번 100문 100답 자료를 집필하면서 지난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문 100답 자료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최대한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여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자료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 전형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 발간을 위해 자문진으로 참여해 주신 각 대학 입학사정관님과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고민을 함께 해주신 8명의 집필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기 은 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사교육에 손을 내미는 이들을 위해 현직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 한발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막연함과 궁금증이 해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자문진 명단

- ▶ 김 정 훈 |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충 인 | 강남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동 훈 |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혜 진 |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 ▶ 손 선 열 |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 ▶ 이 현 철 | 경상대학교 입학사정관
- ▶ 최 흥 수 | 경운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수 연 |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 ▶ 석 창 훈 |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 ▶ 문 미 희 | 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
- ▶ 최 흥 선 |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경 문 | 광주과학기술원 입학사정관
- ▶ 장 지 영 | 꽃동네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창 우 |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 ▶ 안 미 연 | 대전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태 훈 |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 ▶ 이 상 명 | 동덕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 ▶ 윤 세 련 | 동아대학교 입학사정관
- ▶ 이 정 은 | 동의대학교 입학사정관
- ▶ 권 영 희 | 명지대학교 입학사정관
- ▶ 엄 대 원 | 목포대학교 입학사정관
- ▶ 정 나 영 |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 ▶ 정 은 진 | 상명대학교 입학사정관
- ▶ 유 신 재 |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 ▶ 이 송 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재 우 |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 ▶ 조 미 숙 |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노 진 |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 ▶ 양 승 희 |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 ▶ 윤 장 혁 |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범 식 | 송실대학교 입학사정관
- ▶ 고 지 영 |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정 선 |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 ▶ 우 근 태 |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
- ▶ 양 갑 규 | 우석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지 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 ▶ 정 성 모 | 원광대학교 입학사정관
- ▶ 안 정 희 |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 ▶ 임 보 영 |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영 록 | 전남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주 현 |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정 은 | 조선대학교 입학사정관
- ▶ 최 원 호 |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민 성 |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
- ▶ 주 현 규 | 카이스트 입학사정관
- ▶ 권 성 철 | 포스텍 입학사정관
- ▶ 이 석 록 |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이 화 |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
- ▶ 이 선 근 | 한림대학교 입학사정관
- ▶ 윤 지 령 |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 ▶ 연 창 모 | 경인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조 환 채 |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엄 성 원 | 대구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구 경 호 |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한 성 구 | 서울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박 종 섭 | 진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김 현 아 |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 ▶ 장 효 주 |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사정관

+ 대입 준비를 위한 대학입학정보 사이트

대교협 대학입학상담센터 1600-1615	상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7월 : 오전 9시~오후 6시 • 8월~12월 : 오전 9시~오후 10시
대교협 온라인상담 univ.kcue.or.kr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상담센터 배너 클릭 • 우측 마이메뉴>온라인상담 클릭
대학입학정보 포털사이트 univ.kcue.or.kr	대학입학정보 바로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가입 없이 대입정보의 모든 것 검색 및 확인
대입상담센터 교사용 홈페이지 ssam.kcue.or.kr	교사가 제공하는 대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네트워크 온라인 진로진학상담 • 전공상담기부단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학과선택 용이 •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대학교육의 성과 확인
대입지원 정보서비스 applies.kcue.or.kr	수험생의 지원 현황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 지원이력과 위반내역 조회